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곡 시기: 1884–1885년, Mürzzuschlag
초연: 1885년 10월 25일, Meiningen 궁정극장, Brahms 지휘 ·Herzogliche Hofkapelle 연주

IMSLP: Symphony No. 4, Op. 98

Wikipedia: Symphony No. 4 (Brahms)

Johannes Brahms의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은 그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다 . 이 글은 관현악 원곡의 네 악장 전곡을 다룬다. Allegro non troppo 로 시작해 Andante moderato, Allegro giocoso 를 거쳐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로 끝나며, 마지막 악장은 여덟 마디 주제의 변주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별도의 표제나 줄거리 없이 네 악장이 서로 다른 형식과 관현악 편성으로 이어지는 작품이다.

두 해에 걸친 작곡과 첫 공연

Brahms는 1884년 여름 Mürzzuschlag에서 1·2악장을 썼고, 이듬해 같은 곳에서 4악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 3악장을 작곡했다. Robert Pascall이 편집한 신브람스전집은 자필 총보의 묶음과 쪽매김도 이 순서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밝고 힘찬 3악장이 먼저 나오고 Bach의 변주 형식과 연결되는 피날레가 그 뒤를 잇는 순서는, Brahms가 두 악장을 쓴 순서와 다르다.

완성된 교향곡은 1885년 10월 14일 Vienna에서 Brahms와 Ignaz Brüll의 두 대 피아노 연주로 가까운
동료들에게 먼저 소개되었다 . 그 자리의 신중한 반응과 다음 날 3악장을 빼라고 권했다는 이야기는 참석자 Max Kalbeck의 후대 회고에 전한다. 관현악 리허설에서는 Meiningen 궁정악단 음악감독 Hans von Bülow 가 10월 22일 보낸 편지에 작품의 새로움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높이 평가했다. Brahms-Institut Lübeck에 남은 당일 프로그램은 10월 25일 Meiningen 궁정극장에서 열린 궁정악단 제 3회 정기연주회의 초연 지휘자가 Brahms 자신이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는 11월 궁정악단의 순회 연주에서도 이 곡을 아홉 차례 지휘했다. Vienna에서는 1886년 1월 17일 Hans Richter가, Berlin에서는 그해 2월 1일 Joseph Joachim이 첫 공연을 이끌었다. Vienna 공연 뒤 Eduard Hanslick은 작품의 풍부한 생각과 엄격한 아름다움이 첫 청취에서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며 반복해서 들을 필요를 썼다. 초연의 호응 뒤에도 작품의 복잡한 첫인상을 해석하려는 비평이 이어졌다.

출판 정보와 자료

관현악 총보와 파트보는 첫 순회와 후속 공연을 거친 뒤 1886년 10월 중순 Berlin의 N. Simrock에서
출판되었다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네 손 편곡은 같은 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먼저 나왔고, 한 대의 피아노
네 손 편곡은 1887년 1월에 출판되었다 . 이 세 출판물의 날짜를 구별해야 초연 이후 작품이 공연과 인쇄본을
통해 퍼진 순서가 보인다.

현재 이 글의 기준은 Robert Pascall 편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제 I/4권 (2011)의 악보 본문이다. Henle의 연구용 총보 HN 9856과 Breitkopf & Härtel의 지휘자용 총보 PB 16103과 OB 16103 계열 관현악 파트은 이 신전집 계열을 공급한다. 비평판은 1886년 Simrock 총보 초판 초쇄를 주자료로 삼고, Zürich Zentralbibliothek에 기탁된 자필 총보와 초판 파트보, Brahms가 소장했던 인쇄본 등을 대조했다. 자필 총보에는 작곡가의 수정뿐 아니라 출판사 교정 담당 Robert Keller가 첫 교정 과정의 변경을 붉은 잉크로 옮긴 흔적도 남아 있다. 초판 총보의 판번호는 8686, 파트보의 판번호는 8618이다.

1악장 앞에는 Brahms가 완성된 악장에 뒤늦게 더했다가 삭제한 3¾마디 도입부가 있었다. Meiningen 리허설에서는 시험했지만 10월 25일 초연에서도 연주했는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늦어도 11월 4일에는
철회되었으며 , 통용되는 총보의 첫머리는 이 추가 도입 없이 시작한다. Riccardo Chailly의 Decca 교향곡
전집이 짧은 Alternative opening 을 별도 트랙으로 실은 것은 삭제 자료를 들려주는 사례이지, 그 도입이
현행 본문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요 시간

Breitkopf & Härtel은 전곡을 약 40분,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약 42분으로 안내한다. 실제
녹음에서는 지휘에 따라 약 37–44분 사이의 차이가 확인된다. 전곡을 계획할 때에는 약 40–42분을
중심값으로 보고, 1악장 약 12–13분, 2악장 약 10–12분, 3악장 약 6분, 4악장 약 9–11분으로 가늠할 수 있다. 1악장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제시부 반복이 없으므로 그 악장의 시간 차이를 반복 실시 여부로 설명할 수는 없다.

편성

다음 악기명과 수는 Pascall 편 신전집 계열의 연주 자료와 초판 파트 목록을 따른다.

목관악기 : 2 Flöten (2. Flöte auch Piccolo), 2 Oboen, 2 Klarinetten in A und C, 2 Fagotte, Kontrafagott
금관악기 : 4 Hörner in E, F und C, 2 Trompeten in E und C, 3 Posaunen (Altposaune, Tenorposaune, Bassposaune)
타악기: Pauken, Triangel
현악기: Violine I, Violine II, Viola, Violoncello, Kontrabass

Piccolo와 Triangel은 3악장에, Kontrafagott은 3·4악장에 쓰인다. 세 Posaunen은 4악장의 첫 주제를
제시할 때 비로소 등장한다. 현행 편성 코드에서 Piccolo는 Flöte와 겸임할 수 있지만, 신전집이 재구성한 당시 공연 인원에는 별도 주자가 맡았을 가능성도 남는다. 초연 악단은 51명 또는 52명으로 기록되며, Brahms가 이듬해 다른 공연을 위해 요청한 현악 파트 수는 그보다 많았다. 초연의 작은 규모는 중요한 실연 자료이지만
모든 공연에 적용되는 고정 인원은 아니다.

네 악장의 진행

I. Allegro non troppo — E minor

바이올린의 첫 선율은 하행 3도와 상행 6도가 이어져 길게 노래하는 모양을 만든다. 선율을 이루는 작은 간격이 이후 다른 성부와 리듬 속에서도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악장 전체의 재료가 첫머리에 놓인다. 팡파르 뒤에는 첼로와 호른의 넓은 제 2주제가 나타나며, 현악의 움직임과 관악기의 응답이 점차 더 크게 맞물린다.

이 악장은 소나타 형식이지만 제시부 반복은 없다. 발전부가 처음의 선율과 조성으로 돌아오면서 잠시
앞부분을 되풀이하는 듯하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 뒤의 재현은 목관이 여리게 첫 주제를 암시하고 현악이 응답하는 대목을 거쳐 본격화된다 . 발전부의 가짜 반복과 뒤늦은 재현은 같은 선율을 서로 다른 구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끝의 코다는 앞서 노래하던 재료를 강한 종결로 이끈다.

II. Andante moderato — E major

호른이 내는 짧은 신호가 클라리넷 선율로 이어지며 느린 악장을 연다. 처음의 선법적인 음형은 E장조 중심의 음악에 고풍스러운 색채를 더한다. 관악기의 힘찬 신호가 음가를 늘인 첼로 선율로 바뀌는 대목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온 재료가 길이와 음색을 달리해 자란다. 후반에 첫 주제가
돌아올 때에는 앞서 지나온 관현악 음향을 품은 더 큰 귀환이 된다.

해설마다 이 악장을 넓은 3부 형식 또는 발전부가 축소된 소나타 형식으로 분류한다. 두 이름 중 하나를 작품의 공식 표제처럼 고정할 필요는 없다. 호른에서 클라리넷으로 옮겨 가는 시작, 첼로 선율로 넓어지는 중간, 첫 재료가 돌아오는 끝의 순서가 실제 악장의 윤곽을 전한다.

III. Allegro giocoso — C major

3악장은 2/4박자의 빠른 진행으로 앞선 두 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 힘차게 하강하는 첫 주제와 grazioso 로 표시된 바이올린의 한결 부드러운 주제가 맞서며, 중간의 Poco meno presto 에서는 호른이 처음의 재료를
길게 펼치며, 이어 Tempo I 로 돌아온다. 악장의 위치와 성격은 스케르초를 떠올리게 하지만, 전형적인 3박자 스케르초와 긴 트리오를 그대로 되풀이하지는 않는다. 여러 공연기관의 해설은 이 악장의 큰 진행을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한다.

Piccolo, Kontrafagott, Triangel이 여기서 더해진다. 이 악기들의 투입과 강한 두 박자의 운동은 악장이 밝아졌다는 추상적인 인상보다 더 구체적인 대비를 만든다. 특히 Triangel과 Piccolo는 다음 피날레로 계속 남는 악기가 아니다. 3악장에서 넓어진 관현악의 색채 뒤에, 4악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금관을 드러낸다.

IV. Allegro energico e passionato — E minor

피날레는 여덟 마디 주제,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한 30개의 변주와 코다로 이루어진다 . 첫 주제의 화성 골격은 Bach의 칸타타 《 Nach dir, Herr, verlanget mich》 BWV 150 종결 합창에서 Brahms가 취해 변형한
재료와 연결된다. 문헌은 이 악장을 샤콘 또는 파사칼리아라고 부르지만, 두 말은 Brahms가 출판 악장에 붙인 제목이 아니라 변주의 방식을 설명하는 후대의 형식명이다 . 주제가 반복될 때마다 꼭 같은 저음이 맨 아래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음악은 선율 ·중간 성부 ·저음의 위치와 악기 조합을 바꾼다.

앞선 세 악장에서 쉬던 Posaunen은 첫 주제를 제시하는 순간부터 참여한다. 초기의 힘찬 변주와 바이올린의 노래하는 대목을 지나면 플루트 독주를 비롯한 조용한 목관 변주가 나온다. 이어 트롬본 ·호른 ·바순의 긴 호흡이 두드러지는 대목을 거쳐 주제가 강하게 돌아오고, 뒤의 변주들은 리듬과 음역을 다시 바꾸며 Più allegro 의 코다로 향한다. 한 주제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도 악기, 음량, 박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 이 피날레의 핵심이다. 끝은 E장조로 바뀌어 화해하지 않고 E단조로 닫힌다.

작곡가의 지시와 후대의 선택

1886년 Berlin 첫 공연을 준비하던 Joachim은 Brahms에게 메트로놈 수치를 요청했다. Brahms는 숫자 대신 자필 총보에 특히 피날레의 빠르기와 성격을 바꾸는 몇 가지 기입을 더해 보냈다. 작품이 아직 낯설 때에는
밀고 늦추는 강조가 표현을 돕지만, 연주자에게 익숙해진 뒤에는 그 과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전했다. 따라서 당시의 임시 기입을 모두 통용 인쇄본의 영구 지시로 옮길 수 없고, 반대로
숫자로 고정된 한 가지 빠르기를 작곡가의 원칙으로 세울 수도 없다.

뒤에 Walter Blume가 기록한 Fritz Steinbach의 이른바 Meiningen 전통은 다른 성격의 자료다. Pascall은 Blume의 기록과 Brahms가 Joachim에게 보낸 자필 기입 사이에 거의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휘자 John Eliot Gardiner는 자신의 2008년 녹음 해설 대담에서 이 전승을 참고하면서 , 1악장 첫 주제 계속구의 강약 변화와 피날레 81–88마디에서 목관과 현악이 주고받는 소리를 강조했다. 그의 선택은 실제 악기군의 대화를 명료하게 만들지만, 전승 문헌을 그대로 Brahms의 최종 명령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2018년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실황을 이끈 Manfred Honeck은 자신의 음반 해설에서 더욱 세밀한 균형을 제시한다. 1악장 73마디 부근에서는 현악과 호른 ·트럼펫의 강한 어택을 일찍 물려, 오보에 · 클라리넷 ·바순과 호른의 marcato 동기가 들릴 공간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227마디부터 관악기와 현악기가 이어받는 긴 선율은 하나의 legato 로 연결하려고 했고, 현악에는 활을 더 자주 바꾸어 소리를 잇게 했다. 피날레에서는 97마디 플루트 독주자 Lorna McGhee의 프레이징을 살리고, 113마디 트롬본 ·호른 ·바순의 슬러 아래에서는 찍힌 음보다 이어 부는 선을 강조한다. 137마디 현악의 ponticello 음색과 153마디 이후의
엄격한 박 역시 Honeck이 자신의 연주에서 선택한 대비다.

Benjamin Zander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공개 콘서트 해설에서 피날레 플루트 독주를 크게 늦추지 않고 앞선 흐름 속에 두는 자기 연주를 시연한다. Honeck은 같은 대목에서 독주자의 개별 프레이징을 전면에 둔다. 조용한 중간 변주를 다룬 두 설명은 앞뒤 변주와의 빠르기 관계, 독주 선율의 호흡이라는 서로 다른 연주
선택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주요 레코딩

Felix Weingartner / London Symphony Orchestra, 1938: 2월 14일 Abbey Road에서
녹음한 초기 음향 기록으로, 영국 Columbia 78회전반에서 나왔고 Pristine PASC334 등으로
복각되었다 . MusicWeb의 John Quinn은 절제된 진행과 리듬 통제, 어둡고 강한 피날레를 특징으로 들었다. 78회전반과 현대 복각의 음질은 당시 악단의 실제 균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Carlos Kleiber / Wiener Philharmoniker, 1980: Deutsche Grammophon 녹음이다. The Guardian 의 Andrew Clements는 긴박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 음반을 추천했다. 앞의 이른 기록과는 다른 20세기 후반 현대 관현악의 표현을 보여 주는 비교점이다 .

John Eliot Gardiner / Orchestre Révolutionnaire et Romantique, 2008: 시대악기와 역사적 악단 규모 ·배치를 실험한 SDG705 녹음이다. MusicWeb의 John Quinn은 1악장의 분명한 성부와 피날레의 긴장, 조용한 변주에서 들리는 목관 독주를 호평했다. Gardiner 자신의 대담은 이 녹음이 전승 자료를 토대로 한 현대의 해석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Manfred Honeck /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2018: Heinz Hall 실황을
Reference Recordings가 FR-744로 발매했다. BBC Music Magazine 의 Erik Levi는 관악 ·현악의
혼합과 선명한 반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 1악장 시작음을 조금 늘리고 피날레 다섯째 마디에
크레셴도를 더한 해석도 짚었다. 이 녹음은 지휘자 자신의 마디별 선택과 독립 비평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Lübeck, 1885년 초연 프로그램: 초연 날짜 ·장소 ·지휘자를 확인했다.
Robert Pascall, Henle HN 9856 서문 과 비평 주석: 작곡 순서, 초기 연주와 수용, 출판 연혁,
자필보와 초판의 관계, 삭제 도입부, Joachim 서신을 대조했다. Presto Music의 Chailly 전집 트랙
목록 은 삭제된 도입의 부록 수록을 확인하는 자료다.
Breitkopf & Härtel, Pascall 편 교향곡 4번 연주 자료: 현행 신전집 본문과 편성 ·소요 시간을
확인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 Jan Swafford의 작품 해설, San Diego Symphony, Eric Bromberger의 작품 해설, Cal Performances, Phillip Huscher의 작품 해설: 악장별 악기 투입, 음악의 진행과 피날레의 주제 ·변주를 대조했다.
John Eliot Gardiner, SDG705 공식 해설 ·대담, Manfred Honeck, FR-744 음반 해설, Benjamin Zander, 교향곡 4번 공개 해설: 지휘자들의 작품별 선택과 그 대상 대목을 확인했다. MusicWeb, Weingartner 녹음 비평, The Guardian, Kleiber 녹음 비교 감상, MusicWeb, Gardiner 녹음 비평, BBC Music Magazine, Honeck 녹음 비평: 녹음의 평가는 비평가의 견해로 구분했다.